

# 英國의 經濟學教育과 研究

羅 城 麟\*

<目 次>

I. 序 論
II. 英國高等教育의 體制
III. 英國經濟思想의 歷史的 發展
IV. 經濟學教育
V. 經濟學研究活動
VI. 結 論

## I. 序 論

英國은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의 發祥地이고 또한 경제학 발전의 最大貢獻國이다. 비록 20C 후반에 들어 오면서 국력의 쇠퇴와 함께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경제학 선진국의 위치를 고수하며 경제학의 제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量的인 면에서는 미국에 비견할 수 없으나 미국 다음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 그 규모를 감안한 質的인 업적을 고려한다면 영국의 경제학은 세계정상급의 위치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V節 참조). 특히 영국경제학을 대표하는 Cambridge, Oxford, London School of Economics(L.S.E.) 3개 대학이 세계경제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C 전반까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至大하다.

이와 같은 평가는 결코 영국의 경제학계가 하등의 문제가 없이 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정부로부터의 예산삭감, 그로 인한 두뇌유출(brain drain), Post-Keynesian 이후의 거시경제학의 침체 등은 영국경제학계가 극복해야 했던 문제점들의 몇 가지 예들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英國經濟學의 特性 및 세계경제학에서의 位置를 가능한 한 정확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있으며, 둘째로는 자원의 불충분 등의 여러 가지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학 선진국의 위치를

\* 翰林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견지하고 있는 영국 경제학계의 效率性을 그 教育과 研究를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경제학 발전에 他山之石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 이것은 또한 본 논문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경제학 선진국들의 교육과 연구들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경제학교육과 연구의 방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고 생각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논문의 限界點들을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分析의 方法」에 관한 것으로 가능하면 모든 분석을 객관적인 데이터 및 통계에 근거하여 시도하려 한 필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적지않은 부분이 필자의 主觀的인 관점에 의해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分析의 範圍」에 있어서도 논문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영국경제학의 교육과 연구의 모든 측면을 다 포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문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대표적인 몇몇 대학이나 기관이 분석대상이 되었고 그것들 마저 필자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범주내의 것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을 배제하진 못한다. 마지막으로 영국경제학에 대한 본 논문의 여러 가지 評價에는 필자 자신의 오랜 영국생활<sup>(1)</sup>로 인해 bias가 있었을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논문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II節은 경제학교육이 그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英國高等教育體制를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개관하고, III節은 Adam Smith에서 Keynes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英國經濟思想의 發展을 역사적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 다음에 IV節에서 영국의 經濟學教育을 고등학교과정에서 대학원 후의 과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V節에선 英國經濟學研究의 지원현황과 각 기관의 연구가 어떻게 서로 보완 및 경쟁관계를 이루면서 영국경제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VI節은 要約을 하고 한국 경제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몇 가지 提言으로 끝맺는다.

## II. 英國高等教育의 體制

영국의 대학교육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상이한 교육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大學(Universities)이고 다른 하나는 專門技術大學(Polytechnics, Colleges, Institutes

(1) Essex University와 Oxford University에서의 6년간의 교육기간과 Wales University와 Essex University에서의 3년간의 교수기간.

of Higher Education)이다. 두 기관의 차이는 대학이 純粹學文을 주로 연구하는 데 비해 전문기술대학은 일반적으로 實用的인 學文에 더욱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총 46개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36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2개가 있다. 대학은 수입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지함으로 기본적으로 국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학위도 독자적으로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의 유일한 사립대학은 Buckingham 대학이다(각 대학의 명칭 및 위치는 <附錄 1> 참조).

전문기술대학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30개의 Polytechnics가 있고, 스코틀랜드에는 16개의 Colleges와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이 있다. 이 전문기술대학들은 지방교육청에 의해 예산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학위도 각 대학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학위의회(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에 의해 일괄적으로 수여된다.

영국의 고등학생은 16세가 되면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이때 일종의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sup>(2)</sup> 시험을 보게 된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18세까지 학교에 머무르면서 일종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level 시험을 보아야 한다.<sup>(3)</sup> 대학입학원서는 Oxford와 Cambridge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직접 제출하지 않으며 UCCA(Universities Central Council on Admissions)에 4개 대학을 수험생 자신의 선호를 명시하여 1년 전에 제출한다. Oxford와 Cambridge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UCCA에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그들 두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olytechnics에 가려는 학생은 PCAS(Polytechnics Central Admission Scheme)에, College나 Institutes에 가려는 학생은 직접 그 대학에 원서를 제출한다.

대학의 합격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나, 대체로 GCSE, GCE A-level의 시험성과 면접에 의존한다. 면접에서는 전공과목에 대한 소양 뿐 아니라, 교양, 취미, 스포츠,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같은 것이 포함된다. Oxbridge(Oxford와 Cambridge의 통상적 略語)의 경우는 자체시험을 치루기도 한다. 합격선은 기본적으로 GCSE 과목 중 1 내지 3개를 합격해야 하고, A-level의 2 내지 3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한 과목에도 A, B, C의 등급이 있어 대학의 수준에 따라 합격선은 다르다.

영국의 대학(Universities) 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無償이다. 생활비도 1980년 이전까지는 모두 국가로부터 지불되었으나, 1980년 보수당정권이 들어서서 이후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와 정부가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향으로 발

(2) 1989년부터 종전의 GCE O-level 시험이 이것에 의해 대체됨.

(3) 스코틀랜드에서는 Scottish Standard grades와 Scottish Higher grades가 각각 이에 해당함.

전되어 왔다.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엔 전액이 국가에 의해 부담이 되나 근래에 와서는 이 액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Mass Education의 경향이 있는 미국이나 여타 유럽의 대학과 달리 대학입학정원이 작고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에(1:10), 기본적으로 純粹學文 지향적이고 Elite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Oxbridge를 제외한 모든 다른 대학의 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평준화되어 있는 편이며 여타 대학도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Oxbridge와 대등한 수준에 이른 대학도 여럿 있다. 경제학의 London School of Economics(L.S.E)나 자연과학의 Imperial College of London University 등이 그 예이다.

대학의 학사과정은 3년으로서(스코틀랜드의 경우는 4년), 1년은 3학기(terms)로 나뉘어진다. 그러기에 우리와 같이 교양과정의 이수없이 전공과목에 치중함으로써 대학의 全人教育 보다는 專門家教育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 전인교육은 대학의 강의를 통해서보다는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과외활동(extramural activity)과 대학에서의 다양한 結合學位(joint degree: 예 : B.A. in Economics and Philosophy 등) 등의 활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教授方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Oxbridge의 tutorial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강의식이다. 前者는 교수 1인이 학생 1 내지 2명을 상대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토론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제도이다. 後者는 전체 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lecture)와 그들을 다시 여러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class(또는 seminar)들로 구성된다.

評價方法은 기본적으로 1학년 말에 한번 치르는 중간평가와 3학년 말에 가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졸업시험에 의하나, 학기중에 계속되는 essay와 tutorial의 이행태도에 의한 평소의 평가도 고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험문제들은 他대학에 과목별로 위임한 外部試驗官들(external examiners)에 의하여 그 수준의 적합성 등이 평가되도록 되어 있어 시험수준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교수의 구성은 professor(정교수), reader/senior lecturer(부교수), lecturer(조교수)로 이루어지며, professor는 전체의 12~3%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tenure가 주어지며,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위가 인정된다. 교수의 임용 절차나 조건은 각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고, 철저하게 공개채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AEA meeting과 같은 공개적인 job market은 없지만, 보통 주요일간지(*Times*, *Guardian*, *Independent*)와 주

간지인 *Economist*에 교수채용공고가 광고된다. 임용절차는 부교수급 이하는 그 대학내의 타학과의 professor급 교수가 포함된 해당학과의 senior member 중심의 인사위원회(selection committee)의 서류심사(주로 reference, 연구업적, 학력)와 철저한 인터뷰에 의해 채용된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조교수, 부교수급에게도 거의 자동적으로 tenure가 주어졌으나, 1980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교육부문에 시장경제의 원리틀 도입하여 재임용제로 바뀌면서 tenure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교수의 임용절차는 보다 까다로워서, 해당학과 및 대학의 원로교수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여 총장이 위원장이 되는 대학의 이사회(senate)에 올리면, 이사회는 외부의 대학에 위탁한 경제학의 權威者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서 교수채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종종 미친다.

영국 대학교육제도의 또하나의 특징은 모든 대학의 예산이 국가에 의해 지원됨에 따라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内の 또는 대학間的 競争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내의 경쟁으로는 교수의 진급이 우리와 같은 年功序列順(seniority)에 의하지 않고 철저하게 實力爲主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대학의 정교수(professor)는 30—35세 가량의 특별히 뛰어나고 창조적이어서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학계가 인정하는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40세가 넘어서 professor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대개 lecturer에서 professor로 바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reader를 거치기도 한다. reader와 senior lecturer는 비슷한 대우를 받지만, senior lecturer는 lecturer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주어지므로, senior lecturer를 거쳐 professor가 되는 법은 거의 없다. 그러나, Oxbridge의 교수 직위체계는 여타 대학과는 다르다. 두 대학에서는 lecturer도 다른 대학의 professor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으며 실제로 다른 대학의 professorship을 포기하고 Oxbridge의 lecturer로 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경우 월급을 비롯한 모든 대우는 타대학의 professor급에 못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Oxbridge의 lecturer들은 보통 타대학의 professor로 진급되어 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대학간의 경쟁의 촉진으로는 매년 각 대학의 연구업적과 교육성공에 따라 等位를 매겨 그 성과를 예산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업적이 중요시 되는데 각 대학 마다 유능한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곤 한다. 이 점에 대해서 V節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 III. 英國經濟思想의 歷史的 發展

近代經濟學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출발하여 발전되어 왔다. 古典派 經濟學(classical economics)은 18C말과 19C초에 Adam Smith와 David Ricardo에 의해 발전되었고, 그 후엔 John Stuart Mill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 19C 말에 들어 와서는 Stanley Jevons, Francis Edgeworth, Alfred Marshall 등에 의해 新古典限界學派가 발전되었다.

20C에 들어와서는 John Maynard Keynes가 「巨視經濟學」이라는 새로운 분야와 그것과 연관된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ing)의 이론을 창조하였다. 미시경제학의 분야에서는, 근대 미시경제학의 주요한 이론들이 1930—1940년대에 영국경제학자들, 특히 John Hicks에 의해 발전되었다.

영국은 또한 수많은 경제이론과 경제학파들의 産室이었다. 경제성장이론(Harrod), 경영 자본주의이론(Marris), Cambridge 화폐수량설, 이중노동시장이론(Lewis), 최적조세이론(Mirrlees, Atkinson) 등이 前者의 예이고, Cambridge 학파(Marshall, Pigou, Keynes), 후기 케인지안 경제학파(Robinson, Kaldor), 신 Marxist 학파(Steedman), 신 Ricardian 학파(Sraffa) 등이 後者의 예이다.

Keynes 이후 유명한 1960년대의 미국과 영국 Cambridge 학파들 사이의 Cambridge-Cambridge 논쟁의 전후까지 영국의 거시경제학은 Keynes 경제학의 거시적 접근에 치중하여 미국의 Neo-classical 경제학의 미시적 접근을 경원하는 바람에 1970년대에 나타날 New-classical Macroeconomics를 예견치 못한 채 거시경제학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 주게 되었다. 그러나, Cambridge Post-Keynesian들의 역사적 퇴장과 함께 기왕에 미시경제이론쪽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영국의 Neo-classical 전통을 이어 받아 미국경제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20C 후반기에 들어와선 영국의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과 대체로 융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유럽대륙의 경제학자들이 영·미 두 나라 경제학의 접근방법의 유사성으로 인해 “Anglo-Saxon”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같은 경제모델을 쓰고, 같은 저널에 논문들을 발표하며 두 나라의 대학 사이에 빈번한 교류를 하여 왔다.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영국의 경제학이 미국의 그것보다는 타 경제사상(예 : 사회주의 경제학, 비주류경제학)에 좀더 包容的이어서 영국의 경제교육이 주류경제학 그것도 기교중심의 경제학에 치중하는 미국에서 보다는 그 範圍가 넓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이 미국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한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동시에 동구 및 서구 유럽과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또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발전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선 일반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는 사회주의정당이 정치권의 막강한 힘으로 업존하고 그들이 또한 그동안 몇 번씩이나 정권을 담당함으로써 경제학의 사고구조 및 발전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제학의 조류와 같이 발전을 해 오면서도 유럽대륙에서 발전하는 경제학을 동시에 수용하여 양쪽의 媒介者 역할도 수행하여 왔기에 영국 경제학의 사고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다. 어떤 한 주제를 다룰 때 그들은 기술적인 면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경제사의 분석방법, 사회주의 경제학의 폭넓은 수용, 불평등 및 빈곤의 경제학에 대한 폭넓고 깊은 연구의 축적, 경제통합이론의 정립 및 발전, 공공경제학의 重視 등에 잘 나타난다.

끝으로 최근의 영국경제학의 흐름을 개관해 보면, 1970년대가 일반균형이론의 전성기였다면, 1980년대는 Game 이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Game 이론의 산업경제학 및 노동경제학에의 적용이 활발하다. 경제이론쪽에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 정보(information),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계량경제학 분야도 L.S.E., Cambridge의 응용계량경제학과, Oxford의 Institu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그리고 Warwick의 계량경제학과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특히 연구가 활발한 분야의 하나인데, 1987년의 Econometric Theory에 의하면 L.S.E.가 이론계량경제학의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과로 선정되었음이 이를 잘 보여 준다. 1980년대 들어 Financial Economics에 대한 관심의 고조도 특기할 만하다. 전통적인 강세분야인 Public Economics 분야에서는 최근들어 조세개혁(tax reform), 사회보장제의 개혁(social security reform), 사회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등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EC 통합과 관련하여 Economics of Integration,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의 연구가 활발하다. Marx 경제학은 1980년대 초 Neo-Ricardian과 Marxian 사이의 價值論爭 이후 별다른 이론적 발전 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해오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량적 접근[Rawthorn (Cambridge), Glyn(Oxford)] 또는 미국쪽의 영향을 받은 분석적 Marxism(Cohen(Oxford)) 등이 활발하다.

결론적으로 영국경제학은 New-classical 거시경제학의 등장 이래로 미국경제학에 거시경제학 분야의 주도권을 넘겨 주었지만, 미시경제이론, 후생경제학, 공공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Marx경제학, 발전경제학 그리고 경제사 및 경제사상사 등의 분야에선 여전히 미

〈表 1〉 Keynes 이전의 영국경제학자

경제학자	출신학교	교수학교	경제학에의 기여
Smith, A.	Glasgow	Oxon, Glas.	근대경제학의 아버지
Malthus, R.	Canatb	Haileybury	인구이론
Ricardo, D.			정치경제학
Senior, N.W.	Oxon	Oxon	이윤이론
Mill, J.S.			정치경제학
Sidwick, H	Cantab	Cantab	신고전파경제이론
Marshall, A.	Cantab	Cantab	한계혁명
Edgeworth, F.	Oxon	Oxon	무차별곡선, 제약곡선, 에지워드 상자
Hume, D.	Edinburgh		speci-flow mechanism
Jevons, W.	Univ. Col.	Univ. Col.	한계효용이론
Pigou, A.C.	Cantab	Cantab	후생경제이론
Keynes, J.M.	Cantab	Cantab	거시경제이론의 창시자
Robertson, D.	Cantab	Cantab	business cycle
Babbage, C.	Cantab		operation research
Bagehot, W.	Univ. Col.		화폐경제, 경제사상
Bailey, S.			가치의 이론
Bentham, J.	Oxon		공리(효용)주의
Bowley, A.L.	Cantab	L.S.E.	경제통계학
Clapham, J.H.	Cantab	Cantab	경제사
Cunningham, W.	Cantab	Cantab	경제사
Jones, R.	Cantab	King's Col.	경제사

국경제학에 못지 않게 또는 그보다 앞서서 主導的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 〈表 1〉과 〈表 2〉는 세계경제사상이나 이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영국 경제학자들을 Keynes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함께 정리한 것이다. 그들의 경제학에의 기여 내용 뿐 아니라 그들의 출신학교와 그들이 직접 가르쳤던 학교도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영국경제학의 발전에 Cambridge, Oxford, L.S.E. 세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또 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경제학자들의 人選은 Mark Blaug의 *Great Economists before Keynes*(1986)와 *Great Economists since Keynes*(1983)에서 주로 발취하였으나 그가 미처 포함하지 못한 주요한 몇몇 경제학자들을 필자가 임의로 포함시켰다. \*로 표시된 경제학자들은 영국인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활약을 함으로 해서 영국경제학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영국경제학에 대해 그들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간주되기에 포함되었다. 밑줄로 표시된 사람들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다(참고로 Cantab와 Oxon은 각각 Cambridge와 Oxford의 통상적 略語임).



〈表 2〉 Keynes 이후의 대표적인 영국경제학자

경제학자	출신학교	교수학교	경제학에의 기여
Harrod, R.	Oxon	Oxon	경제성장론, (Harrod-Domar 이론)
Hicks, J.	Oxon	Oxon	미시이론, IS-LM
Feldstein, M.*	Oxon	Oxon	재정학, 사회보장제
Sen, A.	Cantab	Oxon	사회선택이론, 빈곤
Boulding, K.	Oxon		경제분석
Clower, R*	Oxon	Essex	케이스불완전고용균형의 이중결정가설
Kalecki, M.		Oxon	경제동태이론
Little, I.	Oxon	Oxon	후생경제, 비용—편익분석
Marshark, J.*		Oxon	계량경제
Pasinetti, L.	Cantab	Oxon, Cantab	Post-Keynesian 거시경제
Stiglitz, J.*		Oxon	정보의 경제
Meade, J.E.	Oxon,	Oxon, L.S.E.	국제무역
		Cantab	
Dobb, M.	Cantab	Cantab	마르크스경제학
Hahn, F.	L.S.E.	Cantab	일반균형이론
Hawtrey, R.	Cantab		화폐, 금융
Kaldor, N.	L.S.E.	L.S.E.	Post-Keynesin 거시경제
		Cantab	
Robinson, J.	Cantab	Cantab	Post-Keynesin 거시경제
Baumol, W.	L.S.E.	L.S.E.	판매극대화가설, 불균형성장모델
Coase, R.	L.S.E.	L.S.E.	Coase 定理
Hayek, F.*		L.S.E.	화폐경제
Lancaster, K.*	L.S.E.	L.S.E.	소비자이론(차선이론)
Lerner, A.	L.S.E.	L.S.E.	후생경제학
Robbins, L.	L.S.E.	L.S.E.	경제이론
Shackle, G.	Uni. Col.	L.S.E.	기대, 불확실성이론
Lewis, W.	L.S.E.	L.S.E.	이중경제이론
Sraffa, P.		Cantab	Neo-Ricardian
Stone, R.	Cantab	Cantab	계량경제
Scitovsky, T.	L.S.E.	L.S.E.	후생경제학
Mirrlees, J.	Cantab	Cantab, Oxon	최적조세이론
Atkinson, A.	Cantab	Essex, L.S.E	불평등, 소득분배
Morishima, M.		Essex, L.S.E	경제성장, Marx경제
Lipsey, R.	L.S.E.	Essex, L.S.E	필립스곡선

## IV. 經濟學教育

## 1. 高等學校 經濟學教育

고등학교에서 경제학은 하나의 獨立된 교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대학입학 자격시

험인 GCE A-level에서도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선택되어진다. 대학의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은 A-level 경제학을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합격할 필요가 있다. A-level 경제학의 수준은 우리나라 주요대학의 경제학과 1학년 경제원론의 수준인데, 최근에 발전된 경제이론들을 더 신속히 수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수준이 미약하나마 좀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A-level의 미시경제학 분야는 게임이론을 이미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고등학교 경제학 담당교사들을 위하여 많은 대학들이 방학을 이용한 단기 강좌들을 개설하여 최근의 경제학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 2. 大學學部에서의 經濟教育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Polytechnics 보다는 Universities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앞의 Ⅱ節에서 언급했듯이 학부는 3학년으로 구성되고, 매학년은 3학기(10~12월, 1~3월, 4~6월)로 구성되고, 매학기는 10주로 이루어진다(단 Oxbridge의 경우엔 8주). 다른 나라보다 1년이 짧은 이 기간 동안 영국의 대학은 거의 경제학 전공분야와 그를 위한 수량적 분석방법에 치중한다. 1학년 첫학기(가을학기)에 교양선택이 있긴 하지만, 이 선택도 경제학공부를 위해 필요한 컴퓨팅이나 수학 과목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교과목 履修方式은 우리처럼 학점제가 아니고 course unit제도를 채택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보통 3년동안 12~14 과목정도를 이수하여야 한다. 과목수는 우리에게 비해 현저하게 적지만 각 과목의 수준이 상당히 깊고 포괄적이어서 결과는 매우 효율적이다.

교과목의 種類는 학교마다 相異하지만, 평균적으로 1학년 때 경제원론, 기초수리경제학 및 통계학을 이수하고, 2학년에 가서는 주요핵심과목(미시, 거시경제학, 수리 또는 계량경제학)을 집중적으로 지도한 다음 3학년에 가서는 다양한 응용 경제학의 과목중에서 몇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教育의 方法에 있어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Oxbridge의 개별지도교수(tutorial)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강의식이다. 전자의 방식은 Oxbridge의 특수한 체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Oxbridge에선 학생들이 College에 속하고, 그들의 교육은 그들이 속한 College가 담당하기에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 전체를 위한 강의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College별로 구성된 커리큘럼에 따라 College tutor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타 대학에서 행해지는 것과 비슷한 교과목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만약에 해당 College tutor 들이 담당할 수 없는 과목이 있을 때는

그 과목에 한해서 다른 College의 교수들에게 위임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수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계발하는 장점이 있으나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의식은 Oxbridge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채용하는 방식으로 교실에서의 강의를 중심이 되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시 학생들을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이나 문제풀이를 하는 class(또는 seminar)를 활용한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Oxbridge 형의 tutorial을 부가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이외에도 학생들마다 개인지도교수(tutor 또는 advisor)가 배정되어 3학년에는 수리나 계량경제학을 활용한 project를 완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評價方法은 두 경우 모두 1학년 말과 3학년 말에 치르는 시험에 의해 평가하고 그 이외에 학기중에 제출한 essay나 project 등의 이행성적을 고려한다. Oxbridge의 경우엔 강의는 College별로 진행하나, 시험은 대학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치루기에 College간의 성적경쟁이 치열하다. 평가의 기준은 기교적인 해결능력 보다는 包括的이고 創意的인 사고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매과목당 3시간에 걸쳐 불과 3—4개의 에세이식 문제에 답하도록 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각 대학의 졸업시험성적이 전국의 주요일간지에 발표된다는 것이다.

(더 상세한 영국의 학부경제학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附錄 2>를 참조 바람. <附錄 2>는 대표적인 3개 대학(Oxford, L.S.E., Warwick) 경제학과와 교과목을 예시한다.)

### 3. 大學院 經濟學教育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1-year M.A. (또는 M.Sc.) 과정과 2-year Ph. D. (또는 D. Phil.) 과정으로 구성된다. 영국대학의 M.A.는 미국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의 1학년과정과 비교될 수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영국의 M.A. 학위는 미국의 masters programme들과 달리 하나의 완전히 독립된 자금자족적(self-contained) 학위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체로 잘 조직되고 인정된 자격을 수여하여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경제학자로서의 직업을 획득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과목의 수준에서 미국의 그것보다 약간 더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원 경제학과 1년생들이 학부과정에서 경제학 이외의 광범위한 교육을 받은 데 비해 영국의 M.A. 학생들은 이미 학부에서의 집중적으로 경제학공부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Ph.D.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을 그들의 학부 3학년 과정에서 이수하였기 때문이다.

履修科目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수량방법론(quan-

titative method(QM) : 계량경제학+수리경제학), 그리고 선택과목 1과목을 포함한 4과목과 30,000단어 내외의 논문을 요구하고 있다. 각 과목들은 강의(lecture)와 class(또는 seminar)에 의하여 행해지고 논문은 개개인에게 배정된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쓰게 되는데, 논문의 수준은 반드시 창조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선택한 주제에 대한 잘 조직된 서베이 정도면 무방하다. 평가는 4개의 강의과목은 학년말에 치르는 시험에 의하고, 일단 이 시험에서 통과된 학생들에 한하여 논문을 쓸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Ph.D.과정은 M.A.과정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한하여 입학이 허용된다. 대개의 경우 Ph.D.로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선 M.Phil.로 등록하여 Ph.D. 논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일 때에만 비로서 Ph.D.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M.Phil.과정으로 이수한 과정은 소급해서 Ph.D.과정의 이수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Ph.D.과정은 두 가지 상이한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영국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전통적인 Ph.D. 학위로서 일단 M.A.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Ph.D.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더 이상의 필수적인 course work이 없이 일단 M.Phil.로 임시 등록시켜 만족스런 진전이 있을 때엔 Ph.D.로 올려 보내 100,000만 단어내의 긴 논문을 요구하는 것이다. 논문 통과 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후보자 자신의 창조적인 작품으로써 그 분야에서 새로운 사실을 기여해야 하며, 인정된 경제학 저널에 2편 정도의 publication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논문의 심사는 후보자의 대학內에서 위임받은 內部試驗官(internal examiner)과 후보자 전공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외부에서 위탁받은 外部試驗官(external examiner)의 두 사람에게 의해 구두 시험(viva)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이 구두시험은 짧으면 3-4시간 길 때는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철저한 시험으로 1차에 성공하는 비율은 50% 미만 정도이다. 많은 경우 수정을 요구당하며 실패확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의 Ph.D.과정은 요사이 L.S.E.를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Ph.D. 과정과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Ph.D.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Ph.D. 1년과정은 M.Phil.로 등록하여 M.A.과정에서 보다 더 高級의 수준에서 coursework을 하며 1학년말에 시험에 통과되면 2년째에는 논문을 쓰게하는데, 이 논문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보다는 훨씬 짧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구두시험은 역시 전통적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치루게 되나 논문의 비중이 그것에 비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것은 Oxbridge의 경우엔 1-year M.A. 과정이 없이 2-year M.Phil.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학의 1-year M.A.과정과 M.Phil.과정을 결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차이점은 일반대학의 경우 他대학에서 M.A.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면 바로 Ph.D.

(즉 M.Phil.)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한데 Oxbridge의 경우엔 타 대학의 M.A.과정을 인정하지 않기에 처음부터 그들의 M.Phil.과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Oxbridge의 M.Phil. 교과과정은 2년동안 미시, 거시, 수량경제학 등 3개의 필수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는 coursework을 거쳐야 하며 이에 더하여 50,000 단어내의 논문을 쓰게 되어 있다. 교수방법은 학부에서와는 달리 강의 및 class, seminar로 구성되고 2학년 말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논문은 다른 과목의 시험과 똑같은 비중으로 평가대상이 된다. M.Phil.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Ph.D.과정으로 입학이 허가되는데 이 경우 M.Phil.과정의 논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 M.Phil. 2년과정이 Ph.D.의 이수과정으로 소급적용됨으로 해서 빠른 경우는 1년 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M.Phil. 등록후 대개 4-5년으로 알려져 있다.

Oxbridge에는 M.Phil. 이외에도 M.Litt.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coursework 없이 바로 research를 하기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일단 등록을 하게하여 만족할 만한 진전이 있을 때에 한해서 Ph.D. 과정으로 올려주기 위한 중간 과정인 것이다. 대개 1학년 말에 M.Phil. 학생들이 치르는 미시와 거시경제학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된다. Ph.D. 과정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엔 M.Litt. 학위를 수여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영국의 대학원 과정에는 Diploma 학위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설립된 과정이다. 교과목은 대개 학부 3학년과 M.A.과정의 것들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만족스럽게 마치면 M.A.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은 M.Phil. 과정으로 바로 진학이 되기도 한다.

(더 상세한 영국경제학과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에 대해선 <附錄 3>참조바람. <附錄 3>에서는 Warwick, L.S.E., Oxford 3개 대학의 경제학과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4. 大學院 後의 經濟學教育

자연과학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학의 경우는 Ph.D. 이후의 확립된 교육제도는 없다. 단지 Warwick 대학을 비롯한 몇 대학에서 post-doctoral fellowship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각 대학에서는 research fellowship(Oxbridge의 경우 junior research fellowship)을 공개경쟁을 거쳐 제공하기는 하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대개의 경우, academic career를 원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바로 lectureship을 획득하든지, 아니면 이미 그 분야에 명성이 있는 교수들의 project에 research associate나 research fellow로 참여함으로써 연구경험을 쌓게된다. 몇몇 유명한 교수들은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대상이 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장기간에 걸쳐 매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는데, 이 경우 이 project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미래의 연구능력을 배양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이나, 그 경쟁은 대단히 치열하다. 그러한 것의 예로는 Hahn과 Dasgupta 교수(Cambridge)의 "Risk, Information and Quantity Signals in Economics" 연구, Atkinson(L.S.E.) 교수의 "Welfare Economics: Taxation and Social Security;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come" 연구, Nickell(Oxford) 교수의 "Employment, Wages and Prices" 연구 등이 있다.

## V. 經濟學研究活動

영국 경제학연구의 特徵은 그것의 높은 생산성(productivity)에 있다. 인정된 경제학 저널이나 저술 등을 통해 세계경제학의 발전에의 공헌량을 경제학연구의 생산량이라 기준한다면, 量的인 면에서는 미국에 따라 가지 못하나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가에 비해서는 앞서 있고, per-capita(대학당, 또는 교수 1인당) 생산성은 세계의 정상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Hirsch 등(1984)의 "Economics Department Rankings"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이 연구는 각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들이 세계의 수준높은 경제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각 경제학과에 세계적으로 등위를 부여했는데 영국은 46개의 대학 경제학과 중에서 10개 대학이 세계의 100대 경제학과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경제학과의 규모가 미국의 그것에 비해 작은 것을 감안하여 per-capita 결과를 고려한다면 과소평가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위의 10개 대학은 London School of Economics, Oxford, Cambridge, Warwick, Bristol, York, Essex, Birmingham, Southampton, Birkbeck(London)이다.

그러면 이러한 영국 경제학연구의 높은 生産性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것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계약하에서도 전국적으로 잘 조직된 연구지원시설과 각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연관,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의 결과로 나타난다. 다음에선 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研究支援資金

경제학 분야의 연구지원자금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이것에 대한 배분 및 집행

권은 경제·사회 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ESRC))에 있는데, ESRC에서는 일년에 3회에 걸쳐 연구 proposal들을 받아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의 기준은 철저하게 연구수행자의 能力과 연구과제의 質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일단 지원된 연구비는 연구수행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배정이 되어, 연구수행자는 필요할 때마다 영수증을 제출하고 연구비를 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연구비의 대부분이 연구수행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연구지원비의 규모는 비교적 넉넉한 편으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시설 및 재료비 이외에 1—2인의 full-time 연구조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그 연구와 관련된 국내의 학회에의 참가비용 등이 포함되며, 연구의 기간도 1년 이외에 2—4년의 中期, 때로는 5—15년의 長期가 흔히 허용된다.

ESRC는 또한 대학원생들 연구의 주요한 자금원이다. 영국의 대학원생들은 그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ESRC로부터 나오는 연구장학금(ESRC research studentships)에 의존한다. 이 장학금은 각 대학에 그 대학의 전년도 연구실적에 따라 배정되는데, 특히 ESRC 수혜장학생의 4년내 Ph.D. 논문 제출률이 40% 이하일 때엔 그 대학은 그 해에는 ESRC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은 그 해에는 우수한 대학원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또한 다음 해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게 됨으로 해서 한번 성적이 부진하게 되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수행실적에 대해 학과전체가 전력투구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ESRC의 연구지원 이외에도 정부의 개별부처 혹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연구지원도 흔한 편이다. 최근에 와서는 산업체로부터의 산학협동과 관련한 연구수주 및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前者 즉 ESRC의 연구지원이 순수학문을 위한 것이라면 後者의 연구지원은 연구지원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 2. 研究支援施設

유기적인 체제하의 전국적인 연구지원시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 1) 효율적인 데이터의 관리

식민통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행정 조직이 그렇듯이 영국의 경제데이터 관리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시간적으로도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공간적으로도 풍부하기에 대부분의 경제변수에 대한 시계열, 또는 cross-section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러한 데이터들은 정기적으로 경제학자들에게 용역을 주어 경제연구에 적합하도록 첨가 또는 수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출판, 공표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이용이나 接近이 항상 가능하다.

2) 데이터 貯藏所(data archive)

위와 같이 데이터는 접근의 용이를 위해 두 개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영국 어디서든지 전국적인 컴퓨터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두 개의 저장소 중의 하나는 L.S.E. 저장소로서 주로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서 발표되는 재무, 화폐, 재정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Essex 대학의 저장소로서 ESRC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의 컴퓨터시설은 이 두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으며 또 각 대학은 대학간의 연결망(JANET)에 의하여 연결되어서, 자기의 사무실에 앉아서 personal computer를 통하여 원하는 데이터에 언제든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대학간의 도서관 상호이용

영국의 대학생이나 교수는 자기 대학 이외의 어떤 다른 대학의 도서관도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가 있으며, 또 대학간 또는 기관간의 도서대출(inter-library loan)을 통하여 자기가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언제든지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기관의 도서관을 통해 구할 수가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세계에서 출판되는 어떠한 자료도 소장되어 있으므로 inter-library loan의 유용성은 실로 다대하다.

3. 大學內에서의 연구(intra-university research)

대학내에서는 개인연구 이외에도 협동연구(joint research)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자신들의 진급과 직접 연관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의 연구 이외에도 많은 대학들은 대학자체내에 경제학의 한, 두 분야에 전문화된(specialised) 연구소들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 연구소의 연구요원들은 자체 교수들을 비상근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전임연구요원을 두어 전적으로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소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Oxford: Institute of Economics & Statistics (응용경제학 분야)

Oxford: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농업경제학 분야)

L.S.E.: Centre for Labour Economics (노동경제학 분야)

L.S.E.: Suntory-Toyota International Centre for Economics & Related Discipline (공공경제학, 소득분배, 복지국가, 개발경제 분야)

Warwick: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Centre (개발경제 분야)



Warwick: Macroeconomic Modelling Bureau (거시모형 및 예측 분야)

Sussex: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개발경제 분야)

Sussex: International Economics Research Centre (국제경제, EEC 분야).

이러한 연구소들은 자체 내의 경제학 저널을 정기적으로 출판하는데 그들 중의 몇몇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경제저널들이다. 또 저널 이외에도 각 연구소 및 학과는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seminar를 개최해 (학기중 매주 1회정도) 자체내의 강사나 외부강사를 초청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서로 배울 기회를 갖는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discussion paper나 working paper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출판되어 다른 기관에 배포되기도 한다. 영국의 각 대학 경제학과 및 연구소에서 발간되거나 또는 영국의 경제학계가 편집권을 갖고 출판되는 경제학 저널들은 다음과 같다.

*Economic Journal* (Cambridge, Royal Economic Society)

*Economica* (L.S.E.)

*Capital & Clas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Cambrid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Oxford)

*Oxford Economic Papers* (Oxford)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Oxfor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Oxford)

*The Manchester School* (Manchester)

*Fiscal Studie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British Review of Economic Issues*, etc.

#### 4. 研究所 연구

영국에는 대학 이외에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社團法人 형태의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 연구기관들은 대학의 연구와는 달리 경험적 연구에 주력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와 좋은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는 재정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무역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Centre for Trade Policy Research(CTPR), 미시경제분석을 주로 하는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IEA), 거시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 Organisation(NIEDO)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모두 비영리 순수연구기관으로 정부나 산업체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나, 그 연구 및 운영의 자율성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들 연구기관 이외에도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연구기관 또한 그들의 현장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와 경기예측 등에서 강세를 나타냄으로 해서 대학의 연구와 서로 보완, 경쟁관계에서 有機的으로 발전하고 있다.

### 5. 全國的인 次元에서의 연구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회로는 王立經濟學會(Royal Economic Society)가 있다.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회비는 없다. 이 학회는 봄, 가을에 두 번 정기 학회를 여는 데, 이 때 선별된 논문들이 발표되고 발표된 논문들은 *Economic Journal*의 papers and proceedings에 게재가 된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ESRC 산하의 분야별 소그룹 연구회(study group)로서, 모든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전공분야에 속해서 한달 마다 한번씩 열리는 정기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도 하며 토론을 한다. 참석자들에게 ESRC로부터 왕복교통비가 지불되며, 논문 발표자에 대한 원고료는 지불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그룹 연구회로는 Economic Theory Study Group, Money Study Group, Public Economics Study Group, Development Economics Study Group, International Economics Study Group 등이 있다.

### 6. 結 語

이상에서 영국의 경제학 연구의 활동상황과 그 지원현황을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영국의 경제학 연구는 ESRC 및 기타 정부부처, 기업체 등에서 지원되는 제한된 자원을 비용의 낭비 없이 그리고 잘 조직된 전국적인 연구망 아래 상호보완 및 경쟁을 통하여 效率的으로 이용하고 있다.

ESRC에서는 매년 영국 대학의 모든 경제학과들을 그들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등위를 매기고 있다. 이 평가는 바로 각 대학의 다음 교육연도의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학과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연구업적은 교수들의 발표된 논문과 저서, 연구비 수혜업적 및 그 수행결과, ESRC 연구장학생들의 성공률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영국 각 대학 경제학과를 대상으로 한 ESRC의 1988/9학년도 평가이다. 평점 1에서 5로 나누는데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나타낸다.

이 평가는 1988/9의 한 교육연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해석상에 주의할 요한다. 예를 들

면 Cambridge가 2번째 그룹에 속한 것은 Cambridge가 2류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단지 그 해에 성적이 저조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참고로 마지막 열은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등수를 나타낸다.

〈表 3〉 영국대학 경제학과의 순위(1988/89)

평점	대 학	사회과학전공 학생비율(%)	전체 학생 수	전체 학과 대 상 순 위
5	Birbeck	—	—	—
	Essex	40	3,200	7
	L.S.E.	—	—	—
	Oxford	20	13,800	2
	Southampton	23	6,800	9
	Warwick	30	6,700	3
	York	20	3,900	5
4	Bristol	21	7,500	4
	Cambridge	20	13,000	1
	Newcastle	22	8,000	12
	Reading	35	6,200	17
	Uni. Col. (London)	—	—	—
3	Aberdeen	31	5,700	23
	Bath	18	3,900	21
	Birmingham	25	9,400	12
	Univ. East Anglia	22	5,000	12
	Hull	34	5,100	25
	Kent	39	4,335	23
	Liverpool	28	7,664	9
	Manchester	14	11,600	6
	Sussex	30	4,400	7
	Queen Mary College	—	—	—
	Nottingham	—	—	—
2	Aberystwyth(Wales)	—	—	—
	Exeter	37	5,400	17
	Leeds	15	10,700	12
	Leicester	26	5,100	21
	Loughborough	—	—	—
	Surrey	25	3,700	16
	Edinburgh	24	10,400	9
	Glasgow	15	10,500	17
	St. Andrews	16	3,900	17
	Stirling	40	3,200	29
	Strathclyde	27	7,600	26
	Queens U. Belfast	20	7,600	27
	Durham	—	—	—

1	Brunel	25	3,000	30
	City	36	3,100	32
	Keele	44	3,100	32
	Salford	19	3,800	32
	Heriot-Watt	28	4,200	27
	Ulster	45	8,300	30
	Dundee	—	—	—
	Royal Holloway	—	—	—
	Swansea	—	—	—

資料 : Royal Economics Society Data

註 : 1) 총 45과 평균점수=2.7, standard deviation=1.3

## VI. 結 論

지금까지 英國經濟學의 특성은 그 敎育과 研究상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경제학敎育은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前者는 학부에서의 빠른 전문화敎育 및 수리, 통계과목의 강조에서 나타나고, 後者는 tutorial 중심의 토론식 敎育방법이나 주관식 중심의 시험방법에서 볼 수 있다. 敎育의 효율성은 대학內의 그리고 대학間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영국의 경제학연구는 순수학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및 대학간의 경쟁을 통한 그것의 효율적 배분, inter-library loan이나 전산망 등을 통한 전국적으로 잘 조직된 연구활동의 지원, 대학과 기타 연구소간의 연구의 보완 및 경쟁을 통해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경제학의 強點은 그 包容性에 있다. 이것은 주류경제학 이외의 타 사조에 대한 적극적 수용, 기술적인 방법론을 중시하면서도 정치, 철학, 역사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 논문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국경제학의 敎育과 연구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다.

첫째, 연구지원시설의 거국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경제데이터의 체계적인 정립 및 接近容易性이 절실하며, inter-library loan의 신속한 실시나 전국적인 전산망의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이 요청된다.

둘째, 정부의 연구비지원의 效率的 配分이 필요하다. 연구비 지원은 철저하게 연구수행

자의 능력과 연구의 merit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능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확충이 절실하다.

세째, 대학원 과정에 diploma 과정의 新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전공선택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학생들이 자기자신의 미래를 비로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대학에 와서 전공을 변경하고 싶을 때, 이것이 쉽지 않아 두뇌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째, 대학연구소의 活性化가 필요하다. 각 연구소는 전문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임 연구원 및 교수를 두어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教授進級制度의 개선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한국적인 전통을 고려하여 기존의 年齡序列制와 선진국의 能力制의 혼합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과정에서 경제학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만들 필요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논문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분석의 방법이나 범위에 있어 필자 자신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학을 그 곳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附錄 2 : 영국 주요 경제학과의 학부 교과목〉

## 1. Warwick (B.A. in Economics)

1 학년	(1) Introductory Microeconomics. (2) Introductory Macroeconomics (3) Quantitative Economics I or II (4) History of Econ. Development or Britain in World Economy (5) Option
2 학년	(1) Microeconomics (2) Macroeconomics (3) Econ. Statistics or Math. Statistics (4) 1 Option from (a) Comparative Econ. Development (b) Economics of Firm & Industry (c) British Econ. History (d) Technics for Math. Econ. & Econometrics (e) Econometrics
3 학년	(1) Econometrics (2) 3 Option from (a) Industrial Policy (b) Public Finance (c) Topics in Econ. Theory (d) British Econ. History since 1870 (e) International Economics (f)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g) Labour Econ. (h) Regional Econ. (i) Regulations & Planning of U.K. Economy
평가 : 연관학위	1학년 과목 : 1학년 말 시험(Part I Exam) 2,3학년 과목 : 3학년 말 시험(Part II Exam) B.A. in Industrial Economics B.A. in Economic History B.A. in Economics and Politics B.A. in Economics with International Studies

## 2. L.S.E. (B. Sc. in Economics)

1 학년	다음에서 적어도 3개 group 중에서 4과목 선택 Group 1 (1) Economics A or B or Mathematical Econ (2) Elements of Accounting and Finance Group 2 (1) Basic Mathematics for Economists or Elementary Mathematical Methods or Introduction to Algebra
------	--

	<p>(2) Introduction to Analysis and Set Theory</p> <p>Group 3</p> <p>(1) Basic Statistics or Elementary Stat. Theory</p> <p>(2) Intro. to Logic</p> <p>(3) Intro. to Scientific Method</p> <p>(4) Theory &amp; Technics of Spatial Analysis</p> <p>Group 4</p> <p>(1) Politics</p> <p>(2) Intro. to Political Thought</p> <p>(3) Intro. to Political Theory</p> <p>(4) English Legal Inst</p> <p>(5)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p> <p>(6) International Law</p> <p>Group 5</p> <p>(1) Modern British History or Econ. History of G.B. and U.S.A.</p> <p>(2) Political History or World History or History of European Ideas</p>
<p>2 학년 3 학년</p>	<p>다음에서 8과목 선택</p> <p>(1) Economic Principles or Principles of Economics treated Mathematically</p> <p>(2) Applied Economics or Quantitative Economics</p> <p>(3) Advanced Economic Analysis</p> <p>(4) Public Finance</p> <p>(5) Economic Statistics or Econometric Methods</p> <p>(6) 2 Options from</p> <p>( a ) History of Economic Thought</p> <p>( b ) Labour Economics</p> <p>( c ) Economics of Industry</p> <p>( d ) Economics of Geography of Transport.</p> <p>( e ) International Econ.</p> <p>( f ) Monetary Economics</p> <p>( g ) Economic Development</p> <p>( h ) Planning</p> <p>( i ) Economic Institutions compared</p> <p>( j ) Economic Analysis of Law</p> <p>( k ) Economics of Welfare State</p> <p>(7) 인정된 타과 과목.</p>
<p>평가 : 연관학위</p>	<p>1학년 과목 : 1학년말 시험(Part I Exam)</p> <p>2,3학년 과목 : 3학년말 시험(Part II Exam)</p> <p>B. Sc. in Monetary Economics</p> <p>B. Sc. in Economic History</p> <p>B. Sc. in Mathematical Economics and Econometrics</p> <p>B. Sc. in Mathematics and Economics</p> <p>B. Sc. in Philosophy and Economics</p> <p>B. Sc. in Economic Institutions and Planning</p>



3. Oxford (B.A in P.P.E.)

1 학년	(1) 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 (2) Introduction to Macroeconomics (3) Economics on Microcomputers (4) 1 Option from (a) Public Choice (b) Income Distribution & Equality (c) Economic Growth & Unemployment in OECD Countries (d) UK Profits & Investment (e) Macroeconomic Policy in UK
2 학년 3 학년	4 Options from (1) Applied Econometrics (2) Monetary Economics (3) International Economics (4) Industrial Economics (5) Economic Statistics (6) Classical Econ. Thought (7) Public Econ. (8) British Econ. History (9) Economics of Communist Countries. (10) Economics of Development (11) Labour Econ. & Industrial Relations (12) Comparative Demographic System 4 Options from 정치학년 교과목 또는 철학과 교과목.
평가 :	1학년 과목 : 1학년말 시험(Part I Exam) 2,3학년 과목 : 3학년말 시험(part II Exam)

<附錄 3 : 영국 대표적인 경제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1. Warwick

M.A. in Economics (1-year)	(1) Quantitative Methods: (Econometrics & Statistical Technics/ Mathematical Technics/Research Technics) (2) Economic Analysis: (Microeconomics/Macroeconomics) (3) 2 Options from (a) Statistical Theory of Econometrics (b) Statistical Analysis of Time Series (c) The Market for Labour (d) The Economics of Unemployment (e) The Economic Analysis of Trade Unions (f) The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 (g) The Theory of Taxation & Expenditure (h) The Empirical Analysis of Tax Reform (i)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 Monetary Economics</li> <li>(k) The Company &amp; Capitalism in Britain: A History</li> <li>(l)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li> <li>(m) Mathematical Economics: Equilibrium Theory</li> <li>(n) Mathematical Optimisation &amp; its Application</li> <li>(o) The New Economics of a Firm</li> <li>(p) Development Planning</li> <li>(q) Topics in Development Economics</li> <li>(r) Central Planning in Theory &amp; Practice</li> <li>(s) Industrial Structure &amp; the Macroeconomy</li> </ul> <p>(4) a Dissertation</p>
<p>M. Phil. in Economics(2-year) : Ph. D.의 예비과정 M.A. 이수시 1년 과정 생략 : Ph. D. 진학시 M. Phil. 이수과정 소급적용.</p> <p>Ph. D. in Economics</p>	<p>1학년 과정 : M.A. 과정과 同.</p> <p>2학년 과정 : M.A. 교과목의 (3)으로부터 2과목 선택.</p> <p>논문 작성</p>
기타	<p>연관학위 : Diploma in Economics; M.A. in Quantitative Development Economics</p>

2. L.S.E.

<p>M. Sc. in Economics (1-ye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Macroeconomics I or II<sup>1)</sup></li> <li>(2) Microeconomics I or II</li> <li>(3) Methods of Economic Investigation</li> <li>(4) 1 Option fr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History of Economic Thought</li> <li>(b) International Economics</li> <li>(c) Economics of Investment &amp; Finance;</li> <li>(d) Labour Economics</li> <li>(e) Monetary Economics</li> <li>(f) Public Finance</li> <li>(g) Economics of Industry</li> <li>(h) Economics of Less Developed Countries</li> <li>(i) Planning</li> <li>(j) Marx, Walras &amp; Keynes</li> <li>(k) Economic Inequality</li> <li>(l)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li> <li>(m) Capital Markets</li> </ul> </li> </ul>
---	--

<p>Ph. D. in Economics: M. Phil.로 예비등록</p>	<p>Type I (New type)</p> <p>(1학년과정) : M.Phil.로 등록하여 Coursework과 Research Semin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Topics in Economic Analysis.</li> <li>(2) 1 Option from:</li> </ul>
--	--

註 : 1) II가 I보다 더 높은 technical standard를 요구.

	<p>(a) Advanced Microeconomic                  (b) Advanced Macroeconomic                  (c) Advanced Mathematical Economics                  (d) Advanced Quantitative Economics                  (2학년 과정):                  논문작성                  Type II(전통적 영국 Ph. D.)                  : Coursework 없이 긴 논문 작성.</p>
기 타	<p>연관학위:                  Diploma in Economics                  Diploma in Econometrics                  M. Sc. in Econometrics &amp; Mathematical Economics</p>

3. Oxford

M. Phil. in Economics (2-year)	<p>(1) Quantitative Methods (1학년말 평가)                  (2) Microeconomics                  (3) Macroeconomics                  (4) 2 Options from:                  (a) Public Policy                  (=Public Econo. + Monetary Econ.)                  (b) International Economics                  (c) Applied Econometrics, Statistical Methods of Econometrics                  (d) Mathematical Economics                  (e) Economics of Communist Countries                  (f)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g) Labour Economics                  (h) Economics of Western Europe, Japan &amp; US.</p>
D. Phil. in Economics	<p>Type I: M. Phil. + 논문                  Type II: M. Litt. + 논문</p>
기 타	<p>연관학위:                  Diploma in Development Economics                  M. Sc. in Development Economics                  M. Sc. in Agricultural Economics</p>

參 考 文 獻

영국 각대학 학부 및 대학원 경제학과 소개책자.

Blaug, M., *Great Economists since Keynes*, Wheatsheaf, 1983.

\_\_\_\_\_, *Great Economists before Keynes*, Wheatsheaf, 1986.

\_\_\_\_\_, Press Notices (personally acquired).

*Econometric Theory*, August, 1987.

ESRC "Current Research in Briatin: Social Sciences," 1987, 1988.

Higher Education in the U.K., *A Handbook of Students and their Advisers*, Longman  
1987—9.

Hirsch, B., & et, al., "Economics Departmental Rankings: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No. 4, 1984.

O'Brien, D., and Preslet, J., *Pioneers of Modern Economics in Britain*, Macmillan,  
1981.

Royal Economics Society Data (personally acquired), 1989.

The Students' Guide to Graduate Studies in the UK (1989), Hobsons.

## 〈討 論〉

## 金大煥教授\*의 論評

이 글은 한국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영국의 高等教育體系와 經濟學教育 및 研究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나름대로 분석한 아마도 최초의 것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필자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 글이 필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학(교육 및 인구)에 대한 진체상과 깊이있는 分析의 제공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 평가가 보기에는, 필자의 전공분야의 성격과 이와 관련된 경험범위의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영국 경제학의 特性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필자는 영국 대학교육을 순수학문 지향적이고 엘리트교육이라고 성직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基礎科學」이 여전히 강하고 歷史的으로 전 분야에서 엘리트교육의 성격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교육제도의 개혁과 인적 자본 이론에 근거해서 볼 때 이른바 「純粹性」과 「엘리트성」은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정이다. 특히 經濟學教育에 있어서는 영국의 경제현실에의 이론적용과 경제학교육의 대중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되고 있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학에 있어서의 數理的인 技法의 위상설정에 있어서도 필자의 전공에 의한 편향이 보인다. 數理的인 分析의 基礎性과 重要性이 증대되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영국 경제학의 분위기는 이것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내세우기보다는 歷史的이고 哲學的인 思考에 봉사하는 「도구상자」(tool box)로 간주하는 측면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들어 計量的 研究가 부쩍 증대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經驗主義的 傳統에도 기인하는 것이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연구비의 배정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당 집권하의 「新保守主義的」 政策基調와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는 연구소 및 학회활동에 관한 소개가 매우 미흡하고 일면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매우 진문화된 연구소가 널리 존재하고 그 전임인력의 교육기능에의 기여, 그리고 연구소 기능의 多面性과 社會奉仕的 役割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 안목에서의 地域研究가 활발한 것은 대부분 연구소의 역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

\* 仁荷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다. 학회 역시 매우 전문화되어 있으며, 특히 그 내부 분과(study group)의 활동이 매우 왕성하고 생산적이다. 분과의 조직이 학회공고나 개인광고로 매우 자유스럽게 이루어진다. 또한 학회 울타리를 벗어나 관심분야나 이슈에 따른 非公式的 研究그룹의 조직과 활동이 매우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영국적인 특성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Ⅲ(英國經濟思想의 歷史的 發展)節 부분은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이론적 계보를 제대로 파악·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찍지 붙이기」(labelling)도 행해지고 있다. 글 전체의 구도에 비추어 「英國 經濟學의 最近動向」에 주력하고 보다 정확한 서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閔庚輝博士\*의 論評

경제학의 元祖國이라고 할 만한 英國의 경제학교육의 제도 및 내용과 경제학연구의 특징이 우리나라 경제학계에 제대로 소개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경제학교육 및 연구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示唆點들이 제시된 것은 아주 드문 일로써, 羅교수의 이번 勞苦는 매우 보람있고 意義있는 일이다. 羅교수의 글은 주어진 主題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고 동시에 요령있게 또 객관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영국의 경제학연구 및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크게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되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많은 적든간의 暗示를 얻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된다.

영국의 경제학은 美國이 주도하는 현대의 經濟科學으로서 보다는 社會科學의 한 分科로서의 政治經濟學으로서 성립·발전해 온 성격이 강한 만큼, 그 관심대상이 主流經濟科學보다 광범하다는 점은 羅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이거니와, 이에 대하여 英國經濟의 한 국민경제로서의 固有性에 연유하는 경제학연구상의 특성도 있다. 이 고유성을 편의상 미국경제와 비교한다면, 훨씬 높은 對外開放度(따라서 영국경제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이며, 이 점에서 우리 경제와 매우 유사하다), 비중이 큰 公共部門, 분야에 따라서는 깊숙한 政府介入, 勞動市場의 특성, EC와의 연계성 등을 쉽게 例擧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학연구에 있어서도 관심분야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분야 내에서도 強調點, 接近視角, 分析方法 등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제학이 美國의 그것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영국의 경제학으로부터 얻을 것도 그 못지 않게 많거나 또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評者에게 드는 것은 上記한 특징적

\* 産業研究院 副院長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보다 많은 경제학도가 영국에 유학하여 한국경제학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학생 對 교수의 비율이 과도히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힘든 일이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경제학교육이 학생의 독자적 消化・思考・批判 能力을 배양시키는 데에 보다 더 力點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 車明洙博士의 論評

나성린 교수의 발표는 英國의 經濟學研究 및 教育의 제도적 측면에 관한 부분과 내용적 측면을 다루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대부분을 이루는 전자의 부분은 영국 경제학계의 현실을 대체로 정확히 반영하는 서술로 보이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후자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영국의 經濟學 研究와 教育의 內容的 特質에 관하여 역시 균형잡힌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후자의 주제가 다소 간단히 그리고 인상주의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아쉬움이 있는데, 가령 이는 다음과 같은 계량경제학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였다면 영국 경제학의 개성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우선 E. Leamer(1983)와 C.L. Gilbert(1986a)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計量經濟學的 慣行을 다음과 같이 다소 회화화시켜서 특징짓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올바른 것으로 생각되는 이론이 경험 세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로부터 모델 혹은 specification 이 도출되며, 계량경제학의 임무는 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系列相關, 多重共線性, 異分散 등과 같은 「병리적」 현상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계량경제학자는 방정식의 계수들이 「올바른」 부호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더빈-왓슨 통계량이 2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등등이 될 때까지 방정식을 수정, 보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르다고 믿어지는 이론이 선형적으로 주어지며 계량경제학은 이 이론을 설명 혹은 예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Leamer나 Gilbert 교수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같은 주제에 대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반면 이 두 연구자는 서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라면 이 두 사람은 모두 각각의 모델이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학술지의 독자들이 이 두 서로 다른 결론들 중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한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계량경제학은 별 도움을 줄 수 없다.

영국의 독특한 계량경제학 연구의 흐름을 대표하는 David F. Hendry 교수의 관심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선 그는 무한히 복잡한 경제 현실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는 완전한 파악이 불가능한 현실 그 자체를 *data generating process(DGP)* 라고 부르는데, DGP에 의해 창출되어 우리의 손에 들어온 제한된 양의 데이터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경제의 몇몇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반면 이론 혹은 모델은 DGP에의 *approximation*에 불과한 것으로서 복수의 이론 혹은 모델이 존재할 수 있다. 모델은 DGP와 완벽한 대응관계에 있을 수 없으므로 이들 중 어느 모델이 옳고 어느 모델은 틀렸다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것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쓸모가 있고 없는지만을 판단할 수 있다. Hendry 교수에 의하면 이같은 판단은 'general-to-specific approach'에 의해서 가능하다. 즉 서로 다른 모델 혹은 가설들을 모두 포괄하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모델을 F-test 즉 *linear restriction*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단순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비현실적인 가설들이 제거되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데이터와 모순되지 않는(*congruent*) 모델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데이터와는 독립적으로 도출된 모델을 우선 추정해 보고, 그 결과에 비추어 모델을 보수, 확장해 나가는 앞서 본 방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Hendry 교수는 이러한 태도를 *specific-to-general approach*라고 부른다.

이같은 차이는 計量經濟學 研究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계량경제학이 경제이론과 경험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라고 할 때, 계량경제학을 이용하는 이같은 상이한 방식은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관련에 관한 기본적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經濟現實을 설명하는 「올바른」 이론의 존재를 전제하는 접근 태도를 논리 실증주의적 과학관 위에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든 이론의 잠정적인 성격, 현실의 완전한 설명의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Hendry의 계량경제학은 논리 실증주의의 한계에 대한 Popper의 비판의 기초 위에서 이의 극복을 시도하는 Lakatos, Kuhn, Porty, Putnam 등의 최근의 영미 철학의 동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McCloskey(1986), de Marchi(1988) 참조].

## 참 고 문 헌

de Marchi, N., *The Popperian Legacy in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Gilbert, C.L., "Professor Hendry's Econometric Methodolog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8, 1986(a).

\_\_\_\_\_, "The Development of British Econometrics 1945~85," Oxford University, Institute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pplied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8, 1986(b).

Hendry, D.F., "Econometrics-Alchemy or Science?," *Economica* 47, 1980.

Hendry, D.F., and Wallis, K.F., *Econometrics and Quantitative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4.

Leamer, E., "Let's Take the Con out of Econometrics," *American Economic Review* 73, 1983.

McCloskey, D., *The Rhetoric of Economics*, Brighton: Wheatsheaf, 1986.